



VOL.146



낮
밤

본산성 김해 천문대



CONTENTS

「g+ culture」는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월간 문화예술 소식지입니다.
 김해 시민의 일상에
 문화의 가치, 예술의 창조적 힘,
 함께하는 즐거움을 더하여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을 가꾸는 데
 이바지하려는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의지를 담아 펴냅니다.

발행일 2025. 03. 01.
 발행인 최석철
 편집팀장 이영준
 기획 및 편집 윤혁
 편집실 김해문화관광재단 정책홍보팀 Tel. 055-320-8543
 발행처 50943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060 김해문화관광재단
 통권 146호
 ISSN 2671-4019
 발간등록번호 9-772671-401004-03
 디자인·제작 큰그림 Tel. 055-237-8068

04 **지-컬처(G-Culture)**
 Hit & Run(히트 앤 런)

08 **메이드 인 김해**
 맥주에 김해의 정체성을 담다.
 김해 맥주 '금맥(金麥)'

12 **확대경**
 축제를 통한 종합 문화도시,
 김해를 바라며

14 **G-News**
 김해문화관광재단 공연, 전시, 행사 소개

20 **교육강좌**

22 **김해 데이트**
 사랑살랑 봄이 오니까
 너와 함께 걸어 봄, 김해!

26 **해시태그 #김해**
 김해 지혜의 바다 도서관

28 **재단 여행**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일

30 **같이 Green**
 모두가 만들어가는 푸른 내일,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

32 **행복통신**

34 **독자 코너**



VOL. 146

「g+ culture」에 실린 모든 글과 사진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허가 없이 사용될 수 없으며,
 「g+ culture」에 실린 외부 필자의 글과 인터뷰 내용은 김해문화관광재단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Hit & Run(히트 앤 런)>은 어떤 공연인가요?

<Hit & Run(히트 앤 런)>은 ‘치고 던지고 달리는’ 인생의 다양한 모습을 야구에 빗대어 무용으로 창작한 작품입니다. 야구라는 소재의 대표적인 운동성을 삶의 순간으로 전환하는 것에 큰 목표를 두고 단순하지만 상징적이며 반복되는 움직임은 안무로 표현하였고요. 그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긴장감, 공허함, 여백 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스포츠의 역동적인 순간보다는 그 뒷면에 숨겨진 기다림과 여백 등을 상상하면서 보시면 더 재미있게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와 삶의 어떤 공통점을 안무에 담아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야구와 인생은 끊임없이 움직이며 변화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닮아 있어요. 타자가 배트를 휘두르는 순간은 삶에서 중요한 선택을 내리는 순간과 같고, 주자가 베이스를 향해 달리는 과정은 도전과 성장을 의미하죠. 또한 수비수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항상 준비해야 하듯이 인생에서도 인내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9회 말 투 아웃과 같은 결정적인 순간에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죠. 더 나아가 야구와 인생 모두 타인과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야구에 담긴 삶의 중요한 가치들을 상징적인 안무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현대무용 작품을 처음 접하는 분들께 현대무용의 매력과 이번 공연의 관람 포인트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무용은 춤 또는 움직임을 이용하여 표현하는 예술 장르입니다. 서사적 특징을 가지고 무대를 이끌어가는 연극이나 발레와 다르게 파편적이고 은유적인 표현들로 관객이 직접 상상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죠. 작품마다 연출과 표현 방식이 다양해서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미술 작품을 감상할 때 그 작품을 분석하기보다 그림을 보고 느끼는 감정에 집중하잖아요. 것처럼 현대무용도 무용수들의 움직임에서 서사를 찾기보다는 그들의 움직임이 어떤 구조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 무대 위 장면들이 나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지 집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Hit & Run(히트 앤 런)>은 다소 느리고 지루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저희는 과장된 연출, 화려한 무대와 음악 대신 여백을 통해 관객들에게 사색하는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습니다. 천천히 흐르는 무대 위의 시간 속에서 함께 호흡하며 각자의 삶을 돌아보고 위로받는 경험을 해보시길 기대합니다.

특히 <Hit & Run(히트 앤 런)>은 배리어프리 공연*으로 진행되는 점이 더욱 인상 깊습니다.

저희는 배리어프리 공연을 당연히 존재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극장에 와서 원하는 공연을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공연은 감사하게도 김해문화의전당 측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제안을 해주셔서 더 많은 것들을 시도해 보려고 준비 중입니다. 우선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공연의 시각 정보를 음성 송수신기를 통해 제공하는 폐쇄형 음성 해설과 공연 관람 전 음성 소개 녹음 파일(작품의 내용 및 무대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연 시작 전 실제 무대를 걸어보고, 무용수들의 의상이나 세트의 질감을 직접 손으로 느껴볼 수 있는 터치투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공연에 사용되는 청각 정보를 한글 자막으로 제공하고, 이동이 불편한 관객을 위해 안내 보행 및 이동 지원을 준비합니다. 한 가지 더 특별한 점은 성인 및 청소년 발달장애 관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점입니다. 쉬운 글 안내문을 제공하고, 공연 중 등퇴장을 허용하는 것 외에도 공연 종료 후 스테이지 투어를 통해 공연과 극장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해 보려고 합니다. 안무가와 무용수들에게 직접 공연의 감상과 질문을 해 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해 보려고 해요.

*배리어프리(Barrier-free)는 장애인과 고령자, 임신부 등의 사회적 약자들의 사회 생활에 지장이 되는 물리적인 장애물이나 심리적인 장벽을 없애기 위해 실시하는 운동 및 시책을 뜻한다. 배리어프리 공연은 장애인, 고령자 등이 장벽 없이 편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확대하는 공연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관객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현대무용,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공연의 흐름에 따라 마음 편히 감상하시다 보면 작품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은 삶을 예술보다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라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을 통해 현대무용이라는 낯선 장르를 우리 삶의 일부라 생각하며 더욱 편하게 마주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배리어프리(접근성 공연) < Hit & Run(히트 앤 런) >

일시 2025. 3. 22. (토) 오후 3시
장소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관람료 R 30,000원 S 20,000원
관람연령 8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



예매 페이지 QR

*2019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2020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작

권화유미 | 사진 백동민, 김해대학교 제공

지난해 개최된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폐회식 건배주로 아주 특별한 맥주가 첫선을 보였다. 이름하여 금맥(金麥, 김해 맥주)은 김해시와 함께 김해대학교 HiVE(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일환으로 김해 특산물인 장군차와 산딸기를 활용해 만들었다. HiVE 사업 선정 시 지역사회 공헌 과제 전반을 설계하면서 지역 특화 레시피와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하는 데 주 역할을 한 김해대학교 호텔조리제과 제빵과 이정우 교수를 만나보았다.

맥주에 김해의 정체성을 담다.

김해대학교 HiVE(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
이정우 교수

김해 맥주 '금맥(金麥)'





김해대학교 하이브센터 전경



김해대학교 이정우 단장

김해 맥주 '금맥'과 김해 뒤틀고기로 만든 육포 '금돈미락'



지역과 상생하는 '김해대학교 HiVE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HiVE 사업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 인데요. 전문대학의 인적·물적 자원과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지역 수요에 맞게 활용하여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유도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대학은 2022년 6월 선정되어 지역 수요 맞춤형 평생직업교육 운영을 위하여 11월 HiVE 센터를 개소했구요. HiVE 센터에서는 지역 특화 분야(의생명, 산업안전) 인재 양성과 일반 분야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의 발전을 위한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평생직업교육 허브 역할을 하는 'HiVE 센터'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 개발을 한 이유가 있나요?

HiVE 사업은 총 3가지 영역으로 운영됐는데요. 지역 특화 분야인 의생명과 산업안전을 기반으로 한 정규 교육 과정(시용합의료과와 산업소방안전과), 심화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일반 분야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이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사회 공헌 과제입니다. 지역사회 공헌 과제로 김해시 등 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개발했구요. 이를 통해 김해시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습니다.

Q.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금맥'을 김해시와 함께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만들게 됐는지 자세히 알려주세요.

2023년 HiVE 사업으로 김해 특산물인 뒤틀고기로 육포 '금돈미락'을 만들었는데요. 진영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이와 패키지로 구성할 맥주 개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김해 특산물 중 어떤 걸 활용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호텔조리제과제빵과 학생들이 연구에 참여하여 장군차와 산딸기를 도출해냈습니다. 이후 지역 농가와 협력하여 신선한 재료를 공급받았고, 여러 차례 테스트를 한 후에 두 가지 타입의 맥주를 개발했어요. 마지막으로 김해대학교 구성원들과 김해시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시음회를 거쳐 맥주가 완성됐습니다.

Q. '금맥'이 '2024 동아시아문화도시' '폐막식 건배주로 선정됐었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나요?

저희가 개발한 '금맥'이 공식 행사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가벼운 알코올 도수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어 반응이 참 좋았는데요. 무엇보다 '금맥'이 단순한 상품을 넘어 김해의 정체성을 담은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대학과 산업, 문화가 결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구요. 앞으로도 김해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시도를 계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Q. 앞서 이야기해 주신 것 외에도 '김해대학교 HiVE 사업'의 성과가 있나요?

몇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먼저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3년간 1,3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특히, 경남 유일 RA(의료기기 규제과학) 교육기관으로 선정되어 의료기기 산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AI 플랫폼 수료생들은 수료 후 강사로 활동하거나 안전지도사 과정으로 산업안전 분야 산업체에 취업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구요. 농촌을 방문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교육, 스마트폰 활용 교육, 먹거리 돌봄 체계 구축 등 의료·복지·안전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역 내 창업가들을 대상으로 맞춤 전문가 코칭, 다문화 청소년 학습 역량 향상 및 심리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김해대학교 HiVE 사업'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HiVE 사업 기간에 구축한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하여 계속해서 지역 특화 분야에 맞는 인재를 양성해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HiVE 사업은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그동안 쌓아온 성과는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하여 한층 발전시킬 예정이고요. 김해대학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대학으로서, 김해시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지역 경제와 교육의 중심 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축제를 통한 종합 문화도시 김해를 바라며

글 경남매일 체육·문화부 기자 장영환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 지난해 7월 김해문화재단이라는 명칭에서 '관광'이라는 정체성을 더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다. 이 새 정체성을 가지고 재단은 시, 각 산하기관과 시민 등과 함께 전시, 행사, 축제, 공연 등에 이르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며 김해시의 도시 브랜드 크게 제고하고 있다. 특히 2024년에는 동아시아문화도시, 전국체전, 김해방문의 해라는 3대 메가 이벤트에서 각 기관과 더불어 중심 역할을 수행해 김해의 위상을 대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 점에 관해 한 명의 시민으로서 김해가 '문화'를 통해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즐겁고 자부심도 느낀다.

도시의 경쟁력과 특유의 정체성은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만 그중에서도 비교적 체감 가능한 것은 아무래도 공연, 행사, 축제 등의 요소들이 아닐까 한다. 이러한 것들은 도시 그 자체의 정체성 형성은 물론이고 나아가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온다. 독창적이고 좋은 행사와 축제 등은 관광객 증가, 상품 판매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 작년은 3대 메가 이벤트를 토대로 '가야금 축제', '김해문화유산야행', '허왕후신행길 축제' 등 행사가 이어져 그야말로 '축제의 한 해'였지만 뭔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다. 그것은 아무래도 잘 형성된 도시 정체성의 요소가 축제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무슨 말이나면 그동안 김해시에서 만들어놓은 '로컬 콘텐츠'가 축제에 잘 활용되지 못했다는 느낌이라는 의미다.

지난 2021년 역사전통형 법정문화도시로 지정된 김해시는 그동안 '도시의 DNA 발견', '시민의 문화력 증진', '지속가능성 마련'이라는 핵심 추진목표 아래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전개했다. 그 결과 시의 마스코트 '토더기', 여행 콘텐츠 '뚜르드 가야, 김해형 행복마을 만들기, 뒷고기 브랜딩 사업 추진, 마을미디어 활성화 조례 제정 등 여러 사업을 이뤄냈으며, 특히 시민문화학교 '티키 타카', 예술가의 사회적 실천 '아트 플러스', 도시문화실험실 '김해LAB_N개의 도시사랑법' 등의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돼 시민 주도적 사업 참여라는 의의도 한층 강화됐다. 이러한 노력들은 2023, 2024년 연속으로 김해를 '우수 문화도시'로 지정되도록 했다.

그렇다면 이처럼 성공적인 '로컬 아이템'이 더욱 빛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걸까. 그 방

안 중 하나는 이것이 축제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본다. '시민의 역량'으로 만들어진 콘텐츠가 축제에 그대로 반영된다면 이는 시민 참여의 면에서나, 창의적인 면에서나, 도시 경쟁력 제고의 면에서나 큰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한다.

시민에 의해 제작된 로컬 콘텐츠가 축제에 녹아드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프랑스 아비뇽 축제를 들 수 있다. 세계적인 공연 예술 축제인 아비뇽 페스티벌은 '시 전체가 하나의 무대'가 되는 거대한 행사다. 해당 축제는 공식 행사와 비공식 행사로 나뉘는데, 공식 행사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잘 짜인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다. 비공식행사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행사들이다. 예를 들어 축제날이 오면 지역 주민들은 자신의 집이나 마당, 카페 같은 가게를 공연장으로 개방해 공연팀이 활동하도록 돕는가 하면, 숙박을 제공하거나, 예술가와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아가 아예 특정한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한다. 축제 당일 지역 시민들이 로컬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만들며 이것이 축제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사실 아비뇽 페스티벌의 묘미는 공식 행사보다는 비공식 행사에 더욱 드러난다. 왜 이런 일들이 가능한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것은 프랑스 특유의 예술을 사랑하는 경향, 어릴 때부터 강조되는 다양한 예술교육, 전 시민의 예술 공동체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거리 공연의 개최와 많은 수의 소규모 예술공간, 지자체와 국가의 공공예술 지원제도, 축제가 곧 지역경제라는 관점으로 시민, 자영업자, 상인 등이 모두 협력하는 구조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축제에는 축제든 행사든 예술이든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으며, 축제가 일어나는 날은 온 도시가 축제의 현장이요 문화의 현장이 된다는 점이다. 도시 내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각각의 프로그램들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하모니의 결과는 경이롭기까지 하다.

물론, 김해의 축제와 아비뇽의 그것은 성격이 다르고, 두 도시의 환경 또한 다르다. 그러나 시민의 주도적인 참여라는 면에서 아비뇽 페스티벌은 김해시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 그것은 축제의 기획-제작-참여라는 면에서 시민이 주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현재 각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소규모 행사들의 '네트워

크'가 하나의 거대한 행사로 통합되어 도시와 축제의 또 다른 정체성을 만든다는 점이다. 일찍이 김해도시문화센터는 '문화도시 김해' 사업에 따라 그동안 로컬 콘텐츠의 활용이 가능한 사업들을 진행하며 충분한 로컬 콘텐츠 역량을 쌓았고, '와야G축제' 같은 훌륭한 선례도 가지고 있다. 다만 어떤 축제가 있을 경우 그 축제의 공간적 측면으로나 시민 참여적 측면으로나 독립적인 성격이 돋보이는 것 같으며, 해당 축제와 다른 축제들 간의 연관성도 부족해 보인다. 때문에 여러 축제들이 각각 '파편화된' 느낌 또한 지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일까? 이 자리에서 감히 제안한다면 그것은 '공식적인 축제'와 '비공식적 행사'를 병행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김해에서 큰 공식 축제가 있을 경우 각 지역 각 장소에서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페스티벌'을 동시다발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쉽지 않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영업자, 학생, 동네 주민 등 각 시민이 합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축제 공동 기획단을 만들든지, 크라우드 펀딩을 한다든지, '메가 페스티벌' 여론을 형성한다든지 등의 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김해의 환경에 맞는 '김해형 참여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여기서는 '문화도시 김해'를 통해 만들어진 '시민 참여형 모델'의 역량을 적극 이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싶다. 나아가 이 축제는 단발성이나 휘발성의 성격을 지니는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메가 페스티벌'을 만드는 과정은 한편으로는 도시에 새 색깔을 입히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하나의 축제를 통해 가게가 새롭게 단장되고, 골목길이 변하고, 지역 특유의 예술 환경이 형성되는 등의 변화를 떠올리면 김해시민으로서 설렘이 느껴진다. 전통·역사·문화 콘텐츠가 가득한 김해가 '종합 문화도시'로서 방점을 찍는 역량은 '시민의 참여 분위기'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한다. 모두가 축제를 즐기고, 도시가 축제가 되고, 이 축제가 도시의 정체성과 브랜드를 형성하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김해가 자신의 브랜드로 하나의 축제 도시로서 세계인이 방문하는 곳이 되길 기대해 본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전경 낮(위),저녁(아래)





음악극 〈당신이 좋아〉

음악극 <당신이 좋아>는 영화 러브 스토리를 보고 첫사랑을 떠올리며 감성적인 시간을 보내는 극장 사장 '정우성'과 그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인간 군상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5명의 인물이 각자의 사연과 감정을 통해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과 여운을 남긴다.

이 작품은 2020년 초연 이후 (재)김해문화관광재단의 예술인 지원사업 '불가사리'에 참여하여 지속적으로 무대에 오르며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극대화한 작품이다. 특히 '2024 리:바운드 축제' 공연유통사업에 선정되어, 김해 예술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청와대 가을 음악회 무대에 올라 큰 호평을 받았다.

독특한 전개와 깊은 몰입감을 선사하는 이 음악극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다. 특히 중년의 감성을 자극하는 주크박스 뮤지컬로 유쾌하면서도 때로는 아련한 감정을 자극한다.

일 시 3. 14.(금) 오후 7시 30분 / 3. 15.(토) 오후 3시 / 3. 16.(일) 오후 3시
장 소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티 켓 전석 30,000원
예 매 처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gasc.ghct.or.kr), 예스24 티켓
관람연령 8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



배리어프리 무용 〈Hit & Run〉

<Hit & Run>은 2019년 창작산실 올해의 신작, 2020년 창작산실 올해의 레퍼토리 선정작으로, 야구라는 소재를 통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탐구하는 작품이다. 또한 이번 공연은 배리어프리 접근성 공연으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해설, 개방형 자막해설, 터치투어, 안내보행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공연장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와 문자 소통이 필요한 관객을 위한 지원도 마련되어 있다. 장애나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Hit & Run>은 무용단체 '시나브로 가슴에'의 대표 레퍼토리로, 2018년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문화예술단체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한 이재영 안무가가 재안무 및 연출을 맡았다.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업 '사전매칭방식'에 선정되어 김해문화의전당의 기획과 지원을 통해 더욱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일 시 3. 22.(토) 오후 3시
장 소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티 켓 R석 30,000원 / S석 20,000원
예 매 처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gasc.ghct.or.kr), 예스24 티켓
관람연령 8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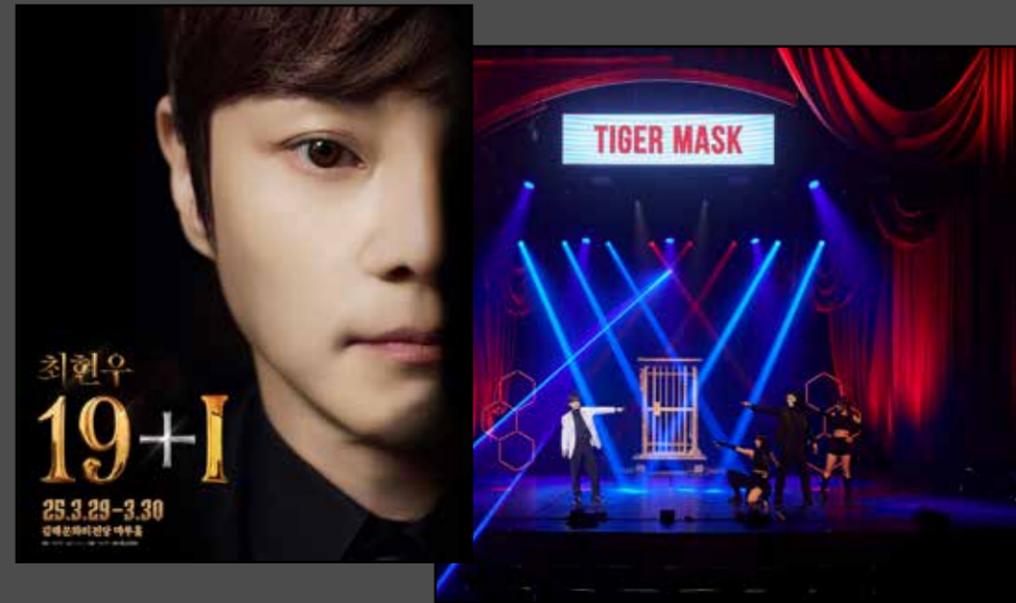


3월 저녁의 음악회 〈뷔에르 앙상블〉

이번 공연은 클래식 애호가들에게 새로운 음악적 경험을 제공하고, 클래식 고유의 매력을 다시 한번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저녁의 음악회'는 2006년 '아침의 음악회'로 시작하여, 매년 클래식 음악의 매력을 다양한 방식으로 소개해온 김해문화의전당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3월 공연에서는 목관 5중주단 '뷔에르 앙상블(Vere Ensemble)'이 출연한다. 클라리넷 조성호, 플루트 유지홍, 오보에 고관수, 바순 이은호, 호른 주홍진으로 구성된 이들은, 목관악기 특유의 따뜻하고 섬세한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앙상블로 듣는 클래식'은 각기 다른 악기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하나의 음악을 만들어 가는지 관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연이다. 특히, 하나의 작품을 여러 악기의 색깔로 해석하고 표현하는 앙상블 공연은 클래식 음악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감동을 선사하는 무대가 될 것이다.

일시 3. 27.(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 누리홀
티켓 전석 20,000원
예매처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gasc.ghct.or.kr), 예스24 티켓
관람연령 8세 이상(2018년 이전 출생자)



최현우 〈19+I〉

대한민국 대표 마술사 최현우가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에서 19번째 마술쇼 <19+I> 전국투어 공연을 선보인다. <19+I>는 기존의 마술 공연을 넘어선 새로운 개념의 마술 블록버스터 쇼로, 시각적 경이로움과 마술의 극한을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19+I>는 세계적인 마술사 다니엘 피츠키(Daniel Fitzkee)가 저서 <Trick Brain>에서 정의한 마술의 19가지 본질적인 현상을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최현우는 이를 토대로 대한민국 30년 마술 역사를 집대성한 19가지 마술 현상을 자신만의 창의적인 해석과 독창적인 연출로 선보인다.

이번 공연에는 최현우의 수제자인 채인애, 임주현, 진범석 마술사도 함께 출연해 블록버스터급 마술을 펼친다. 또한, 모든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인터랙티브 마술을 통해 마술의 극한을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일시 3. 29.(토) 오후 3시, 7시 / 3. 30.(일) 오후 1시, 5시
장소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티켓 R석 99,000원 / S석 77,000원
예매처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gasc.ghct.or.kr), 예스24 티켓
관람연령 7세 이상(2019년 이전 출생자)



어린이 뮤지컬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의 왕 제우스>

<신들의 왕 제우스>는 서양문화의 근원이자 세계와 인간 이해의 출발점인 그리스·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신화 속 다양한 등장인물과 에피소드를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색해 입체적이고 쉽게 표현했다.

'신들의 왕 제우스'는 누적 180만 부 이상 판매된 그리스·로마 신화 도서를 바탕으로 제작된 작품으로, 신화적 요소들이 우리의 언어와 문화, 예술적 세계관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를 만화적 스토리텔링 기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제우스가 크레타섬에서 홀로 지내며 가족을 찾기 위한 모험을 펼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지혜의 신 메티스와의 만남을 통해 다양한 고난을 이겨내며 성장하는 모습을 그린다. 이 작품은 어린이들이 신화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자연스럽게 인문학적 시각을 가지도록 길라잡이 역할을 한다. 이번 공연은 아이들이 신화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적이고 흥미로운 무대가 될 것이다.

일 시 3. 15.(토)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4시 30분 / 3. 16.(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장 소 (재)김해문화관광재단 김해문화의전당 하니홀
티 켓 전석 70,000원 (상시 할인 적용가 38,500원)
예 매 처 김해서부문화센터, 예스24 티켓, 인터파크 티켓
관람연령 24개월 이상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일일 공예수업 <공예사계> - 봄을 담는 패브릭 화병

<공예사계>는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의 일일 공예수업으로 공예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손끝으로 만나는 계절, 공예로 채우는 시간'이라는 슬로건 아래 매월 각 계절에 어울리는 소재 및 공예 품목을 선정하여 다 함께 만드는 시간을 가진다.

3월에는 꽃을 주제로 '봄을 담는 패브릭 화병' 수업이 열린다. 김해에서 활동하는 황예지 섬유공예가와 함께 봄꽃처럼 다채로운 빛깔의 한복 노방천을 이용해 한 땀 한 땀, 손바느질로 한 폭의 그림 같은 화병을 만들어 본다. 수업은 바느질이 서툴러도, 처음이라도 누구나 멋진 나만의 화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준비된다. 싱그러운 봄기운 가득 담아줄 화병과 함께 다가오는 새 계절을 맞이하는 건 어떨까?

일 시 3. 15.(토), 3. 29.(토) / 오전 10시~낮 12시, 오후 1시~3시(총 4회)
장 소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교육지원실
강 사 진 황예지 섬유공예가(비마이테일 대표)
참가비 1인 2만 원
예 매 처 김해문화의전당 홈페이지(gasc.ghct.or.kr), 예스24 티켓
참가대상 만10세 이상 일반시민 누구나
문 의 김해공예창작지원센터 055-340-7054 및 인스타그램 @ghcraftcenter

김해문화의전당 문화예술아카데미 봄학기 수강생 모집

접수기간 2025년 02월 17일(월) ~ 강의별 모집인원 접수마감까지(월별 수강 가능)

접수시간 월~금 09:00~19:00, 토 09:00~12:00(점심시간 12:00~13:00)
 ※ 상기 접수시간은 2025년 2월 17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금요일까지(공휴일 제외)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접수방법 전화(계좌입금, 카드결제, 제로페이), 방문(계좌입금, 카드결제, 제로페이, 현금) 및 온라인(http://payment.gasc.or.kr/)
 ※ 전화 카드결제는 결제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함
 ※ 온라인은 모바일 접수 및 할인 적용 불가, 학기 접수에 한함

접수장소 김해문화의전당 1층 아람배움터 사무실
 •Tel : 055-320-1215/1262

강의일정 2025년 03월 04일(화)~2025년 05월 29일(목) ※ 단 수요일 강좌는 3/12 개강
 ※ 강좌별 커리큘럼 및 일정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법정(대체), 임시공휴일은 휴강이며 별도의 보강이 없습니다.
 ※ 강좌별 수강인원 미달의 경우 조기 폐강될 수 있습니다.

취소신청 전화 및 방문 신청
환불신청 카드 취소 (평일 09:00~18:00 방문 시) 또는 익월 계좌입금
환불조치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문화예술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 이전			수강료 전액 환불	
		개강 이후	강좌기간 1/2 경과 전	취소일 기준 잔여 강좌 횟수의 수강료 환불	
	개강 이후	강좌기간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신청 인원이 수강 최소 인원에 미달될 경우 수업이 폐강될 수 있으며, 폐강 시 수강료는 전액 환불됩니다.
 ※ 최소 인원 미달로 인한 폐강 시 강의 개시일로부터 2일 전에 공지해 드립니다.
 ※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환불 진행 시는 강좌 기간 1/2 경과 후에도 환불 가능합니다.

문화예술아카데미 봄학기 일정

월요강좌 2025.03.10.~2025.05.26.	화요강좌 2025.03.04.~2025.05.27.	수요강좌 2025.03.12.~2025.05.28.
목요강좌 2025.03.06.~2025.05.29.	토요강좌 2025.03.08.~2025.05.24.	

미술

대상	강좌명	강사명	일시	횟수	정원(명)	수강료(원)	구분
6~10세	똑딱 똑딱 자연공작소	황주운	토 10:00~12:00	12	8	159,000(재료비 별도)	단체
초등	초등 현대미술과 민화	이민휴	토 10:00~12:00	12	15	159,000(재료비 별도)	
성인	유화	노재환	목 10:00~13:00	12	15	159,000	
	현대민화 전통의 멋을 그리다	이민휴	월 10:00~13:00	11	12	159,000 (재료비 별도, 작품당 상이)	
	베이직 드로잉	김지현	수 14:00~16:00	12	12	129,000	
	한국화	김정우	수 10:00~13:00	12	12	159,000	
	수채 캘리그래피	사라정	수 19:00~21:00	12	15	129,000	
	수묵 수채 캘리그래피	권은경	목 10:00~12:00	12	15	129,000	
따뜻한 수채일러스트	황주운	목 19:00~21:00	12	12	159,000		
정원조의 수채화 세계	정원조	수 10:00~13:00	12	12	159,000		

※ 재료비, 개인 준비물 별도 (일부 강좌 제외)

음악 (1:1 강좌)

대상	강좌명	강사명	일시	횟수	정원(명)	수강료(원)	구분
초등~성인	플루트 A	이수원	토 09:00~13:00	12	8	(30분) 240,000	1:1
	플루트 B	이수원	목 17:30~19:30	12	4	(30분) 240,000	
	보컬	김영희	토 11:00~15:00	12	6	(30분) 240,000	
	바이올린(비올라)	전숙경	토 11:00~17:00	12	6	(45분) 330,000	
	첼로	김진솔	화 16:00~20:00	12	6	(30분) 240,000	
	피아노 클래스	어숙진	수 17:00~21:00	11	5	(45분) 330,000	
성인	가곡교실	최햇살	목 10:00~20:00	12	6	(30분) 240,000	1:1
				12	6	(45분) 330,000	
성인 시니어	피아노 반주법	전경주	화 09:00~13:00	12	5	(45분) 330,000	

※ 개인 악기 준비강좌(첼로, 바이올린/비올라, 플루트, 색소폰) 대여 불가능
 ※ 아람배움터 보유 악기 사용 강좌 (피아노) 대여비 없음

음악 (단체 강좌)

대상	강좌명	강사명	일시	횟수	정원(명)	수강료(원)	구분
초등~청소년	기타	정재호	토 11:00~12:30 토 12:30~14:00	각 12	각 15	129,000 (악기 대여비, 교재비 별도)	단체
초등~성인	드럼 I	초급	토 09:30~10:20	12	8	150,000	
		중급	토 08:30~09:20	12	8	150,000	
	드럼 II	기본	토 10:40~11:30 토 11:40~12:30	각 12	각 8	각 150,000	
		루디먼트-스틱컨트롤	토 09:20~10:10	12	15	150,000	
	오카리나	박수향	월 16:00~18:00	11	15	129,000	
청소년~성인	통기타	정재호	수 18:30~20:00	12	12	129,000 (악기 대여비, 교재비 별도)	
	김해시민들의 오케스트라	이효상	월 19:00~21:00	11	30	240,000	
	우쿨렐레	이미영	월 10:30~11:50	11	10	129,000(악기 대여비 별도)	
성인	아코디언	김지안	수 19:30~20:50	12	6	180,000	
	하모니카	김병섭	월 19:00~20:30	11	15	120,000	

※ 개인 악기 준비강좌 (오카리나, 하모니카, 아코디언, 색소폰) 대여 불가능
 ※ 악기 대여 가능 강좌 (우쿨렐레, 통기타) 대여비 별도 / 아람배움터 보유 악기 사용 강좌 (드럼) 대여비 없음

무용

대상	강좌명	강사명	일시	횟수	정원(명)	수강료(원)	구분
성인	한국무용	최선희	수 19:00~21:00	12	15	300,000	단체

전통

대상	강좌명	강사명	일시	횟수	정원(명)	수강료(원)	구분
초등~성인	흥겨운 남도소리	홍승자	토 10:00~11:50	12	15	159,000	단체
	가야금	이혜정	목 16:30~18:00	12	6	171,000(악기 대여비 별도)	
초등 5~	해금	이진호	월 18:30~20:00	12	8	150,000(악기 대여비 별도)	

※ 악기 대여 가능 강좌 (가야금, 해금) 대여비 별도

신규

대상	강좌명	강사명	일시	횟수	정원(명)	수강료(원)	구분
성인	서예	박정식	목 19:00~20:50	12	10	129,000(재료비 별도)	단체
	판화&전각	전보미	월 13:00~15:00	11	10	159,000(재료비 별도)	
	위빙	권진아	화 10:00~12:00	12	10	129,000(재료비 별도)	
	민화	이민휴	월 19:00~21:00	12	10	129,000(재료비 별도)	
	드럼	하경륜	수 18:00~19:20	12	10	180,000	

사랑 나날
봄이 오니까

너와 함께
걸어 봄, 김해!

올봄, 가족과 연인, 친구들과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나요? 매일 하는 맛집, 핫플 데이트에 지쳤다면, 따뜻한 바람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계절, 다정한 사람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봐요.

아름다운 자연과 김해 천년의 역사가 함께하는 도보 해설 프로그램 <걸어 봄, 김해> '걸어 봄 김해'는 관광해설사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야 문화유산을 걸어서 탐방하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3개의 구릉을 따라 이어지는 이야기 길을 테마로 '구지봉', '애구지(대성동고분군)', '봉황대' 등 3개의 코스로 운영되고 있어요.

흥미로운 역사 탐방은 물론 봄나들이 코스로도 제격!
함께하는 상대에 따라 마음에 드는 코스를 골라 걸어보기를 추천해요.

사진 백동민, 김해 시청 관광과 제공



01. 구지봉 코스

가족 여행, 피크닉 코스로 제격!

지봉 코스(1km)는 수로왕비릉-구지봉-국립김해박물관-가야의 거리를 따라 걷는데요.

수로왕비 허왕후가 인도 아유타국에서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 배에 싣고 왔다는 '파사석탑', 국문학상 중요한 서사시인 구지가가 탄생한 '구지봉', '국립김해박물관' 등 가야사가 시작된 장소와 유물들을 보며 가야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코스예요.

특히 구지봉은 산책로가 잘되어 있어 아이들과 함께 살아있는 역사 공부를 하는 동시에 꽃놀이까지 가능한 코스인데요. 주변에 맛집과 카페도 많아 코스를 둘러본 후, 가족 외식하기에도 좋아요.



김해 수로왕비릉



김해 구지봉



국립김해박물관

02. 애구지 코스

김해 초심자들의 여행 코스로 굿

옛날 김해 사람들은 구릉을 애기 구지봉, 작은 구지봉이라는 뜻에서 '애구지'라고 불렀는데요.

이 애구지 구릉이 바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대성동고분군이에요. 애구지 코스(1km)는 대성동고분박물관-대성동고분군-수릉원-수로왕릉으로 이어지는데요. 김해의 상징적인 문화유산 수로왕릉이 포함된 코스로, 김해를 처음 방문한 사람이라면 첫 번째로 추천하는 코스예요.

수로왕릉과 대성동고분군 사이에 수로왕과 허왕후가 함께 걸었던 정원, 수릉원이 있는데요. 해설사의 친절한 설명과 함께 아름다운 정원을 거닐며 금관가야의 역사를 깊이 있게 탐방하기에 안성맞춤인 코스입니다.



김해 대성동고분군



수릉원



김해 수로왕릉

03. 봉황대 코스

MZ세대를 위한 데이트 코스로 추천

봉황대 코스(1.5km)는 김해한글박물관-봉황동유적-봉황동유적패총전시관-봉황대길로 이어지는데요.

한때 김해평야가 바다였음을 알려주는 회현리 패총과 봉황리 유적부터 김해한글 박물관과 MZ세대 핫 플레이스인 봉황대길까지 그야말로 김해의 역사와 문화가 겹겹이 쌓인 풍경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코스예요.

특히 봉리단길로 불리는 봉황대길은 빨간 벽돌과 기와지붕 사이사이 카페와 음식점, 개성 강한 가게가 줄지어 들어서 특유의 감성이 묻어나는 장소인데요. 현대와 레트로 감성이 공존하는 거리에서 소품을 사고 차를 마시며 인생 사진까지 찍을 수 있어 MZ세대의 데이트 코스로 강력 추천해요.



김해한글박물관



김해봉황동유적



봉황동유적패총전시관

'걸어 봄 김해'는 각 코스별로 약 2시간이 소요되며, 김해관광포털 또는 종합관광안내소로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걷기 좋은 계절, 가까운 사람들과 김해의 주요 명소들을 걸으며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걸어 봄 김해> 프로그램 안내

- 운영일정** 화요일 ~ 일요일
- 운영시간** 1일 2회(10시, 14시)
- 운영방법** 김해문화관광해설사 동행 해설
- 참가대상** 누구나(미성년자는 보호자 동반 참여 가능)
- 참가인원** 최소 3명 ~ 최대 10명
- 참가비** 무료
- 이용방법** 사전 예약(관광일 3일 전까지 예약)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예약문의** 김해종합관광안내소 055-330-4447 / 055-338-1330

#Hashtag

읽으면서 즐긴다, 김해 지혜의바다 도서관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은 다양한 연령층이 독서와 체험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이다. 2019년 12월, 주촌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한 이곳은 김해시를 대표하는 문화적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다. 독창적인 공간 구성과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지혜동과 바다동 그리고 야외 공간으로 나뉘어 각각의 특색 있는 시설에서 독서와 문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다.

사진 백동민



#지혜동과 바다동, 각각의 매력을 만나다

지혜동은 학습과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다양한 활동과 소회의 장이 되고 있다. 책마실과 더채움 공간에서는 독서 동아리와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카페에서는 독서와 함께 여유를 즐길 수 있다. 지역 기업과 연계된 기업사랑방도 마련되어 있어 다양한 네트워크와 문화적 교류가 이루어진다.

바다동은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을 위한 독서와 창작 공간이다. 어린이들은 공룡마루와 동화방에서 책과 놀이를 통해 독서에 대한 흥미를 키우고, 청소년과 성인은 웹툰존과 지혜마루에서 웹툰을 즐기거나 강연·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또한 야외공간에는 독서텍 마당과 잔디마당이 조성되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여유로운 휴식과 다양한 야외 체험을 즐길 수 있다.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운영 안내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는 연령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사서샘과 함께 그림책 탐구 생활'과 '독토리', '토도독' 등 독서 동아리가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는 '김지바 오픈 책 출판'과 '셀프 스튜디오'와 같은 메이커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창작과 콘텐츠 제작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은 층마다 운영 시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바다동 1층의 어린이 공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2층과 3층은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도서는 1인당 최대 10권까지 14일 동안 대출할 수 있다. 반납 연기는 1회에 한해 7일 연장할 수 있지만, 예약 도서나 스마트 도서관 도서는 연장할 수 없다.



#책과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

지혜동과 바다동의 다양한 매력을 직접 경험하며,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에서 책과 문화를 만나는 특별한 하루를 보내보자. 단순히 책을 읽는 곳을 넘어,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문화적 허브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휴관일 법정 공휴일
(일요일 정상 운영, 법정 공휴일과 겹치면 휴관),
매월 둘째 월요일, 관장이 지정한 날
찾아오는 길 버스 이용 시: 21-1, 21-1A, 21-1B, 21-1C
(지혜의바다 하차 후 도보 1분)
차량 이용 시: 서김해 IC 약 10분, 장유 IC 약 12분
문의 전화 055-330-9800

#Gimhae

감사는 감사가 아니라 원칙을 세우는 일!

사진 백동민

- 이름** 이현
- 소속** 기획감사팀 과장
- 별명** 잘 모르겠습니다.
- 주량** 소주 1병 반
- MBTI** INTJ
- 가장 많이 하는 말** 감사합니다.
- 가장 듣기 싫은 말** 신고, 제보, 상담, 고충



Q. 기획감사팀에서 하는 일과 역할이 궁금합니다.

이현 김해문화관광재단 기획감사팀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단순 지원을 넘어 관광, 축제, 문화예술 분야의 총괄 기획 역할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중에서도 상부 기관 감사 수감, 청렴 및 윤리경영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Q.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이현 2024년 김해시 종합감사를 한 뒤 후속 조치 과정에서 직원 징계가 단 한 건도 없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는 곧 조직이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 업무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핵심인 만큼, 원칙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기획감사팀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신설된 부서로, 단순 지원을 넘어 관광, 축제, 문화예술 분야의 총괄 기획 역할을 강화하고, 감사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Q. 감사 업무를 하면서 직원들과 관계가 힘들어진 적은 없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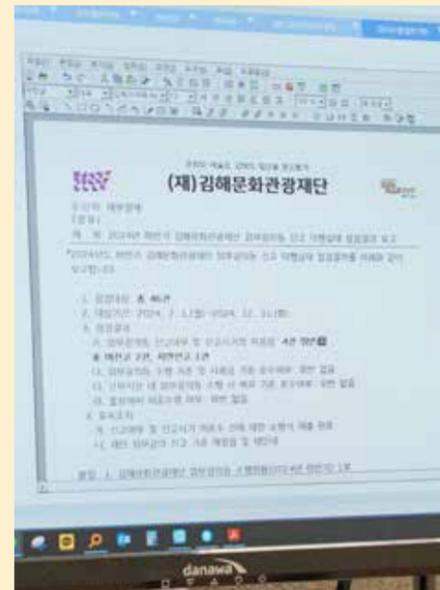
이현 감사팀이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 때문에 직원들이 감시받는다고 느끼거나 불이익을 받는다는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업무는 업무일 뿐이고, 감사팀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직원들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잘 이해해 주고 있습니다.

Q. 동료들에게 가장 많이 당부하는 말이 있다면?

이현 제가 동료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원칙대로 처리하시죠"입니다. 감사를 진행하면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이현 청렴 및 윤리경영 담당자로서, 2025년 김해시가 주관하는 부패 방지 시책 평가에서 작년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을 차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모두가
만들어가는
푸른 내일,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

기후 변화가 우리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치는 지금, 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은 이러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과 지속 가능한 삶의 필요성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2015년에 조성된 이 공원은 김해 장유도서관 뒤편에 자리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환경 보호를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진: 백동민,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 제공



환경을 배우고 체험하는 공간들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은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 공원 입구에는 '350'이라는 숫자가 적힌 표지판이 있는데 이 숫자는 지구의 빙하가 녹지 않으려면 유지해야 할 이산화탄소 농도인 350ppm을 의미한다.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공원 중심부에 위치한 흰 지붕의 기후광장은 다양한 체험 공간과 연결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환경에 대해 놀이와 학습을 통해 흥미롭게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 잡고 있다.

기후터널에서는 온실가스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체험형 전시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제로에너지 전시관에서는 친환경 에너지, 자가발전 기술 등을 활용한 제로 에너지 하우스를 소개하고 있다. 이곳에서 방문객들은 에너지를 절약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다양한 기술을 직접 체험하며 환경 보호 방법을 익히게 된다. 또한 야외 공간에는 테마별로 조성된 벽이 있어 다양한 그림과 캐릭터를 통해 기후 변화로 인한 문제들을 친근하게 설명하고 있다.

여름철에는 친환경 테마로 설계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6월~8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40분까지 총 5회차로 나뉘어 운영되며, 각 회차는 40분 동안 진행되고 20분 휴식 시간을 갖는다. 탈의실과 간이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마련



되어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다만,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더운 여름날, 아이들과 시원하게 물놀이를 즐기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에서는 교육과 재미가 결합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환경부 우수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정된 '초록이 탄소 중립 여행'과 '우리 가족 새싹놀이터'가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방문객들이 놀이와 학습을 통해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초록이 탄소 중립 여행'은 탄소 중립과 자연 생태계의 관계를 배우는 초등학생 대상 프로그램으로, 3월부터 5월,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매월 나무, 식물, 곤충, 동물, 단풍, 씨앗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해 이론 수업과 생태계 관찰, 만들기 체험을 병행하며 자연을 배우고 느낄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 가족 새싹놀이터'는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 체험 프로그램으로, 4월부터 11월까지(7월과 8월 제외) 운영된다. 이 외에도 평일과 주말에 다양한 환경 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방문객들은 이를 통해 환경 정화와 자원 절약 같은 실천 방법을 익혀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함께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미래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 즐기고 배우며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을 통해 환경에 대해 배우고, 소중한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특히 가족 단위 방문객들은 아이들과 함께 흥미로운 체험을 경험하며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자연과 사람 그리고 미래가 함께 어우러지는 김해 기후변화테마공원. 이곳에서 특별한 하루를 보내며 새로운 환경에 대한 시각과 경험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휴식과 학습이 공존하는 이곳에서 여러분은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의 시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휴관일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연휴
관람예약 기후변화테마공원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 가능
전화번호 055-322-8500

김해문화의전당 팀 쥬얼스, 제106회 전국동계체전 피겨 4회 연속 메달 '쾌거'

김해문화의전당 시민스포츠클럽 소속 피겨팀 '팀 쥬얼스 (Team Jewels)'가 제10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빙상 피겨스케이팅 부문에서 4회 연속 메달 획득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번 대회에서 김아론(금메달), 차도이(동메달), 조세림(동메달) 선수가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며, 특히 김해 출신인 차도이 선수가 3위를 기록했는데 관계자들은 그의 성장 속도로 미루어 보아 김해 출신 피겨 국가대표가 나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이처럼 김해시민스포츠클럽 소속 선수들이 전국동계체전 빙상 피겨 부문에서 메달을 획득한 것은 4년 연속으로, 이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스포츠클럽에서 매년 피겨스케이팅 시범공연을 진행하여 선수들에게 무대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코치진의 그간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해문화관광재단은 2025년 4월 전국피겨종목별선수권 대회를 유치하여 지역 선수들에게 더 큰 무대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봉조 경영본부장은 "김해의 피겨 유망주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연습 환경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시민스포츠클럽에서는 생활체육 강좌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김아론 선수

김해문화의전당 차도이·김아론 선수,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상비군 및 청소년 국대 발탁

(재)김해문화관광재단 시민스포츠클럽 팀 쥬얼스 소속 차도이(15세·김해 구산중) 선수와 김아론(16세·부산 만덕고) 선수가 대한빙상연맹 2025-2026시즌 국가대표 상비군 및 청소년 국가대표에 발탁되는 영예를 안았다. 차도이 선수는 뛰어난 기술력과 예술성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보이며 각종 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최근 2025년 전국동계체전 B조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이번 성과에 김해시민스포츠클럽 팀 쥬얼스의 우수한 코치진과 김해빙상장의 최적화된 훈련 환경, 피겨 엘리트 육성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다. 두 선수는 이번 국가대표 상비군 및 청소년 국가대표 발탁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해 한국을 대표하는 피겨 선수가 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민스포츠클럽 운영을 책임지는 김봉조 경영기획본부장은 "부산·경남 지역의 유망주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연습 환경과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도이 선수의 국가대표 상비군 발탁 성과는 김해의 자랑으로 시민들에게 큰 자부심이 될 것이며, 앞으로 두 선수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



차도이 선수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대전환의 시대, 지역문화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포럼 개최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2월 21일(금) 오후 2시 김해문화의전당 영상미디어센터 2층 시청각실에서 '대전환의 시대, 지역문화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문화예술 분야의 트렌드를 분석하고, 지역문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포럼은 전문가 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수경 부연구위원이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25~2027' 기초연구에 대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이후 문화디자인 자리 최혜자 대표, 김해연구원 최나리 연구원, 부산문화재단 원향미 선임연구원, 전 부산연구원 우석봉 선임연구원, ㈜플랜이슈 김진성 대표가 10대 트렌드 분석 중 지역문화와 연관된 주요 이슈들을 중심으로 종합토론을 이어갔다. (재)김해문화관광재단 문화도시센터는 "이번 포럼을 통해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문화예술 분야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해문화관광재단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 동참

(재)김해문화관광재단이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월 21일 김해 외동시장을 방문해 지역경제 살리기에 나섰다. 이번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은 국내외 정세로 인해 물가, 금리, 환율 등 3고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소비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김해시의 경제시책 동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재단 전체 임직원들이 발 벗고 나선 캠페인이다. 재단에 따르면 최석철 대표이사과 김봉조 경영기획본부장을 비롯한 100여 명의 임직원은 외동전통시장에서 설맞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구매하고, '외부식당' 이용의 날 행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 민생 경제 위기로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쳤다. 김해시 전통시장 장보기 릴레이 캠페인은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목표로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상인들의 매출 확대와 전통시장 이용을 장려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기대된다. 재단 김봉조 경영기획본부장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온기를 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며, "지역 전통시장과 인근 식당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해문화관광재단 관련 퀴즈

김해문화관광재단 3월 호 웹진에 모든 정답이 있는!
3월 호를 읽고 정답을 맞춰보세요.

**Q1. 김해문화의전당에서
3월에 공연하는
배리어프리 공연의 이름은?**

- ① 댄스앤런 ② 점프앤런
- ③ 히트앤런 ④ 무브앤런 ⑤ 스텝앤런

**Q3. 김해에서 운영하는
도보 해설 관광
프로그램의 이름은?**

- ① 김해 문화산책 ② 걸어가자, 김해
- ③ 김해 도보여행 ④ 걸어 봄, 김해

**Q4. 특색 있는 시설에서
책과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이 도서관의 이름은?**

- ① 김해반짝도서관 ②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 ③ 김해책바다도서관 ④ 김해별빛도서관

**Q2. 김해대학교 HiVE 센터에서
만든 맥주의 이름은?**

- ① 금맥 ② 은맥
- ③ 동맥 ④ 진맥 ⑤ 산맥

**Q5. 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는
공원의 이름은?**

- ① 김해기후변화테마공원 ② 김해 환경체험센터관
- ③ 김해 탄소파크 ④ 김해 친환경 파크

<G+CULTURE 3월 호 독자퀴즈>에 참여해 주신 정답자 중 다섯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 (김해사랑상품권 2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첨자는 <G+CULTURE 4월 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 QR코드를 인식하여 답안 제출용 구글 폼에 접속 후, 퀴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출한다.
이벤트 기간: 2025.03.01(토)~03.21.(금)





2025.
3.22(토) 오후 3시
김해문화의전당 마루홀

히트맨런

HIT & RUN

